



경준해 연변서 조사연구 시 강조

장점 확대 단점 보완 새로운 성장점 육성에 공 들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의 질적 향상 추동해야



▲ 5월 9일~11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 훈춘수농(首农) 동북아생선해산물기지 현장에서 건설 진전을 현지 고찰했다.

5월 9일~11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연변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동북면전진흥추진 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4대집군' 육성, '6신산업' 발전, '4신시설' 건설에 초점을 두며 현지 실정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특색우세를 발휘하며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는데 공을 들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의 질적 효과 향상을 추동해야 한다.

경준해는 훈춘 수농(首农) 동북아생선해산물기지지와 로희(老姬) 식품밀키트(预制品) 2기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해 건설 진척 상황을 고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변(沿边) 근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전반 산업사슬에서 생산 해산물 정밀 재가공을 추진함으로써 길림 미식이 천가만호에 들어가고 백성들 식탁에 오르며 군중들 주머니에 담기게 하려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길림장백산삼림공업그룹 팔가자림업회사 선봉림산작업소에는 시내물이 졸졸 흐르고 수림과 샘물이 숨박 골질을 하며 천년 묵은 고목 몇그루가 하늘을 떠이고 서있었다. 경준해는 이곳에서 생태환경보호 상황을 답사하면서 름장은 순라보호를 강화하는 토대에서 관광개발이란 문장을 과학적으로 잘 지음으로써 더욱 많은 군중들이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누리

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가공무역 투자 발전은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은 자원을 길림에 배치하고 더욱 많은 프로젝트를 길림에 정착시켜 우리와 함께하고 손잡고 상생해나갈 것을 바랐다. 그는 또 우리는 기업에 유리하고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해 부가가치 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원가를 낮추고 효익을 증대하며 빠른 발전을 하도록 광호한 조건을 창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훈춘 발해고진 프로젝트 현장, 와스토크환락섬, 유럽풍 보행거리에서 경준해는 문화관광과 경제 발전 상황을 고찰하고 문화특색을 더욱 많이 보여주고 문화관광 경영 형태를 더욱 풍부히 하는 랑질의 프로젝트를 계획 건설하고 일련의 왕후 필수 방문지와 트래픽 집결지(流量聚集地)를 정성껏 구축해 발전 활력을 충분히 방출할 것을 당지에 요구했다. 경준해는 또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발전이 서로 잘 어울리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길림장백산삼림공업그룹 팔가자림업회사 선봉림산작업소에는 시내물이 졸졸 흐르고 수림과 샘물이 숨박 골질을 하며 천년 묵은 고목 몇그루가 하늘을 떠이고 서있었다. 경준해는 이곳에서 생태환경보호 상황을 답사하면서 름장은 순라보호를 강화하는 토대에서 관광개발이란 문장을 과학적으로 잘 지음으로써 더욱 많은 군중들이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누리

도록 하고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발전이 상부상조하는 길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걸을 것을 당부했다. 경준해는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 희귀동물식물전람관에 도착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보호를 앞세우고 생명을 근본으로 하며 발전을 중요시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해야 한다. 감측관리를 진일보 강화하며 생물다양성을 더욱 잘 보호하고 생태계통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경준해는 동북호랑이와 동북표범은 길림의 랜드마크식(标志性) 문화 부호로서 이들의 형상을 창의적으로 형상화 해내고 일련의 문화창의의 정품을 다그쳐 만들어내며 길림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잘 전진하고 전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준해는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에 가서 촌의 전체적인 발전 상황 소개를 듣고 오리논벼, 선식옥수수 등 농특산물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으며 서위자촌이 향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특색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집체경제를 확대 발전시킬 것을 바랐다.

그는 또 인터넷 플랫폼을 잘 리용하고 광호한 품질로 판매량을 보장하며 좋은 제품이 꼭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수관(乡愁馆)에는 서위자촌 몇세대 사람들의 공동한 생활 이야기가 전시되어있었다. 이에 경준해는 깊은 정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향촌의 낡은 모습은 새 얼굴로 바뀌었지만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움과 넘려는 변함이 없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들이 산도 보고 물도 보고 향수도 떠올리게 하고 더우기는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 고향을 건설하도록 하며 다같이 고향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경준해와 주, 현, 진, 촌 5급 당위 서기는 함께 빈곤에서 해탈된 리추화네 집으로 가 이들 부부를 둘러싸고 앉아 일상사를 나누고 수입을 료해했으며 미래를 담론했다. 경준해는 습근평 총서기는 향촌 진흥을 고도로 중시하며 향촌 사람들의 생산생활을 특별히 관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5급 서기가 함께 향촌 진흥을 다 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반드시 잘 실행하고 모두를 단결하고 인솔하여 갈수록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연구에서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변은 자원 천품이 우월하고 특색 우세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몇년간 시장 광호한 발전 태세를 유지하면서 길림의 전면 진흥을 상승기에 안정시키고 쾌속도로에서 온당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연변은 '1주6쌍' 고품질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도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산업을 발시키고 체계를 강화하며 신질생산력을 적극 육성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수호하는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정력을 집중해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식을 발전시키며 중점 산업을 둘러싸고 더욱 많은 새 항목을 건설하고 더욱 많은 새로운 봉사를 내놓으며 잠재력 있는 소비를 더 불러일으키고 효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력하게 보장해야 한다. 정력을 집중해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훈춘해양 경제발전시험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외무역 가공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수준을 제고하고 효익을 올리도록 추동하면서 발전의 새 우세를 부단히 구축해야 한다. 정력을 집중해 친환경 발전을 추동하고 생태환경보호 강도를 높이며 문화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빙설관광과 피서레저 명승지를 함께 구축하여 록수정산의 바탕색이 더욱 빛나고 금산은산의 순도가 더욱 짙어지게 해야 한다. 동시에 향촌진흥, 흥변부민, 개혁전면심화, 민생개선보장, 민족단결진보, 안전안정수호 등 사업을 힘써 단단히 틀어쥐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이 고품질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오해영, 호가복, 리위, 리국강 등이 해당 활동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전국 향촌관광 정품로선에 길림성 3갈래 로선 입선!

일전 문화관광부에서 82갈래 '세시절기, 자유향촌' 전국 향촌관광 정품로선을 선정했는데 그중 길림성에서 3갈래 로선이 입선되었다.

로선: 장춘시—송원시—장백산관광지—장백산만달국제리조트—장백산화미명승지—길림시

/ 인민넷

1. 장백산 성경과 송화강 상류를 따라 체험하는 피서레저여행
로선: 장춘시동식물공원—장춘영화촬영소옛터박물관—송화강생태관광풍경구—장백산만달국제리조트—장백산화미명승지—이도백하진—장백산관광지—길림시 북산공원

2. G331 도로를 따라 길림의 가을풍경 감상하기
로선: 장춘시—통화시—집안시—림강시—장백현—로수국가삼림공원—장백산—도문시—연길시

3. 길림 빙설의 향연 즐기기
빙설 시즌 스키, 온천, 무송, 겨울물고기 잡기, 겨울사냥 즐기기 등.



‘동방에 울려퍼지다’—중국문련 문예자원봉사단 연변 동방제 1촌에서 문화성연 펼쳐



10일, 중국문련, 길림성당위 선전부, 중국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최하고 중국문련 문예자원봉사중심, 길림성문련,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주민인정부에서 주관한 '동방에 울려퍼지다'(东方唱响)—중국문련 문예자원봉사단 길림성 연변 동방제 1촌 문예공연이 훈춘시 경진진 방천촌에서 펼쳐졌다.

은수매, 류패기, 진일항, 리옥강, 리미 등 40명 문예자원봉사자와 연변 당지의 260명 문예자원봉사자가 무대에서 함께 공연, 천여명 관중들이 문화성연을 향수하게 했다.

‘아름다운 고향을 노래’, ‘봄과 아름다운 동방’ 상하편으로 된 공연은 고무표현, 기악합주, 상황음악극, 대담 등 예술형식으로 주제가 선포하고 시대에 걸맞으며 다원화 융합으로 단결분투하는 거창한 화폭을 그리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뤄가는 단결의 강음, 부민흥변의 시대적 강음 및 길림성의 아들딸들이 분발 향상하고 융왕매진하는 분투의 강음이 울려퍼지게 했다.

여러 민족 대화합을 보여준 공연은 <붉은 해 변강 비추네>, <변강의 곳 곳 강남과 비기네>, <준마는 질주해 별 변강을 지키네> 등 민족특색이 다분한 선율로 서막을 열며 여러 민족 형제자매들이 석류씨처럼 뽕뽕 뭉치고 중화민족 운명공동체를 확고히 수립해가는 생동한 장면을 재현했다. <나의 조국>, <카츄사>, <도라지> 등 경전적 선율이 중, 로, 조 3국 린점지에서 울려 퍼지고 봄을 알리는 북소리가 연변인민의 즐거운 행복을 알리는가 하면 상황음악극 <영원한 어머니>, 광송 <진달래꽃 피면 또 집으로 돌아가네> 등이 짙은 지역특색과 인문풍정을 부각시키며 새시대 날따라 변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현장 인터뷰 프로는 귀향창업인원

의 분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리옥강의 감성적인 노래 <고향에 돌아온 아리랑>은 은은하면서도 정으로 가득 찼다. 은수매와 모반이 부른, 이번 활동을 위해 창작된 노래 <상상의 나라 펼치는 동방>은 공연을 고조으로 이끌었다...

공연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했고 관중들은 그 속에 푹 잠겨있었다. “예술가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듯 높은 수준의 공연을 펼쳐주니 얼마나 고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시대의 건설자로서 저는 일터를 더욱 사랑하고 조국의 번강에 뿌리를 박고 아름다운 길림성을 건설하는 데 힘을 이바지하겠습니다.” 관중 리흠의 말이다.

이번 공연은 또 중앙과 성내 여러 공식 사이트, 뉴스 APP 및 사이트 플랫폼에서 동시에 생방송되었는데 생방송 활동 네트워크 총 방문량은 연 1257.9만명에 달했다. 인터넷 관중들은 관람을 하는 한편 워체 모멘트를 통해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었고 네트워크 플랫폼에 자막 또는 댓글로 열렬히 교류했다. 관중들은 “연변인민들은 정말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 이는 그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진실한 반영이다.”, “방전에서 울려 퍼진 단결의 약장은 중목들이 잘 짜였고 내용들도 다재로웠다.”고 표했다.

중국문련 문예자원봉사자협회 부주석 겸 비서장 기언위는 “중국문련 새시대명실전중심 지정 령계(길림성) 건설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우수한 문예작품을 인민들에게 선물할 것이며 민족단결을 촉진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과정에서 길림성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길림성의 전면 진흥 발전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1만 4,000 킬로미터 초과! 우리 나라 최장 직항 국제항로 개통!

5월 11일, 심수—메히꼬시티 직항 려객 항로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 항로의 첫 항공편이 당일 저녁 비행했다.

이 항로는 1만 4,000 킬로미터가 넘고 비행시간은 약 16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항

로는 중국의 최장 직항 국제항로 기록을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10개 직항 항로중의 하나이다.

메히꼬 주재 중국대사관 대사 장은 활동에서 중국—메히꼬 항로의 개통은 중국과 메히꼬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교류를 추진하고 두 나라 관

광 합작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간 인원 왕래에도 편리를 가져다주어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간의 상호 령계와 소통, 그리고 쌍방의 경제무역, 문화관광 등 령역의 실무 협력에 새로운 단계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라틴아메리카사 사장 채위는 이 항로는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경유가 없이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를 직항하는 려객 항로라고 소개했다. 이는 중국에서 메히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라틴아메리카로 가는 공중 실크로드이다. / 인민넷—조문판